

전국 > 전북

[고창소식]설 명절 AI 차단방역 총력 등

김종효 기자 | seun6685@newsis.com

등록 2017-01-19 15:49:46



【고창=뉴스is】김종효 기자 = ◇설 명절 AI 차단방역 총력

전북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연휴기간 군민과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AI 유입을 차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AI 일일점검 영상회의가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영상회의에는 이길수 부군수와 고창경찰서 및 고창소방서 관계자, 고창부안축협장,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동림저수지 인근 4개 면장 등이 참석해 AI 유입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고창경찰서는 동림저수지 탐조객 출입통제 근무지원을, 고창소방서는 거점소독장소·소독초소 급수지원 및 화재예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고창부안축협은 축산농가 AI 방역지도·홍보와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지원을 농어촌 공사는 저수지 철새 도래상황 점검·예찰과 폐사체 수거 및 검사의뢰 등을 맡는 등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철저한 차단 방역에 집중키로 했다.

고창에서는 지난해 12월2일 신림면 종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는 추가 발생 없이 선제적 차단방역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전국 > 전북

고창군, 설 휴무 없이 AI 차단방역 총력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7-01-19 15:28:20 송고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AI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 AI 비상대책 영상회의. ©News1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AI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명절 기간 인구와 차량이동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AI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AI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농식품부장관 주재 AI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상회의는 이길수 부군수와 박헌수 고창경찰서장, 김봉춘 고창소방서장, 김대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황철구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을 포함해 고창군 관계자와 동림저수지 인근 면장 등 15명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회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앙영상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AI 차단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따른

유관기관별 역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고창경찰서는 동림저수지 탐조객 출입통제 근무지원, 고창소방서는 거점소독장소·소독초소 급수지원과 거점소독장소 등 화재예방 점검, 고창부안축협은 축산농가 AI 방역지도 및 홍보와 소독약품 생석회 등 방역물품 농가 지원,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철새 도래 상황 점검 및 예찰과 폐사체 수거 및 검사의뢰 등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한 차단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에도 특별 방역단 운영으로 휴무없이 AI 방역에 전념하기로 했다.

현재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9일 신림면 종오리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한 건의 추가발생이 없는 가운데 AI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17일 기준 고창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30여만 마리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동림저수지 철새모니터링 실시 및 동림저수지 주요 초소 10개소를 설치하여 출입자 통제와 소독,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를 하고 있다.

이길수 부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귀성객께서도 가금농장 출입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군, 설 명절 AI 차단방역 차단위한 농식품부장관 영상회의

등록 : 2017-01-19 13:56 수정 : 2017-01-19 13:56



사진은 설 명절 AI 차단방역 차단위한 농식품부장관 영상회의의 장면. <사진제공=고창군>

(고창=포커스뉴스) 전북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명절 기간 인구와 차량이동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AI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 AI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농식품부장관 주재 AI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이길수 부군수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부안축협장,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고창군 관련부서장, 동림저수지 인근 4개 면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합동회의는 중앙영상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AI 차단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따른 유관기관별 역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동림저수지 탐조객 출입통제 근무지원과 고창소방서는 거점소독장소·소독초소 급수지원에 나선 상태다.

또 고창부안축협은 축산농가 AI 방역지도와 소독약품 생석회 등 방역물품 농가 지원,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철새 도래상황 점검, 폐사체 수거 및 검사의뢰 등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한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17일 기준, 고창군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30여만 마리가 머물고 있다.

이에 군은 동림저수지 철새모니터링 실시 및 동림저수지 주요 초소 10개소를 설치해 출입자 통제와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를 하고 있다.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께서도 가금농장 출입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등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린트](#)[취소](#)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지역] 고창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AI 차단방역 총력

기사입력 2017.01.19 09:50 최종수정 2017.01.19 09:50

"명절에도 AI 유입 차단 사활"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명절 기간 인구와 차량이동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AI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 AI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농식품부장관 주재 AI 일일점검 영상회의에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이길수 부군수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부안축협장,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고창군 관련부서장, 동림저수지 인근 4개 면장 등 15명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회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앙영상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AI 차단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따른 유관기관별 역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고창경찰서는 동림저수지 탐조객 출입통제 근무지원, 고창소방서는 거점소독장소·소독초소 급수지원과 거점소독장소 등 화재예방 점검, 고창부안축협은 축산농가 AI 방역지도 및 홍보와 소독약품 생석회 등 방역물품 농가 지원,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철새 도래상황 점검 및 예찰과 폐사체 수거 및 검사의뢰 등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한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귀성객께서도 가금농장 출입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등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기준 고창군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30여만 마리가 머물고 있으며 동림저수지 철새모니터링 실시 및 동림저수지 주요 초소 10개소를 설치하여 출입자 통제와 소독,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9일 신림면 중오리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한건의 추가발생 없이 AI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